수행 근본대의 구체적·심도 있게 설해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① 능엄경(楞嚴經)은 어떤 경인가?

〈능엄경〉의 본래 이름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 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이다. 줄여서 〈수능엄경〉 또는 〈대불정경〉이라 부르기도 한다. 10권으로 되어 있는 이 경은 역자가 반날밀제(般剌密諦)로 되어 있으나 근래에 와서는 중국에서 찬술된 경전으로 보고 있다. 물론 〈능엄경〉 전래에 대해서 인도에서 전해졌다는 전설이 있기는 하다. 관정부(觀頂部)에 속해 있던 이 경이 중인도의 나란타사에 비장(秘藏)되어 있었다고 한다.

왕명에 의해 이 경이 타국으로 유출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다 당 중종 신룡(神龍) 2년(705)에 반날밀제가 범본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와 광주(廣州) 제지사(制止寺)에서 번역하였다는 설이 있다.

원제목에 들어 있는 뜻을 살펴보면 대불정(大佛頂)은 위없는 무상정각을 부처님의 정수리에 비유해 표현한 말로 깨달음 당체(當體)를 나타내는 말이다. 여래밀인(如來密因)은 여래의 과덕(果德)을 얻는 비밀스러운 인행(因行)이라는 말로 밀(密)은 경 7권에 설해져 있는 능엄신주(楞嚴神呪) 곧 다라니를 말한다. 이것이 바로 성불의 인(因)이 된다하여 밀인이라 한 것이다.

수증요의(修證了義)에서 수증이란 닦아 증득한다는 말이고 요의란 이치를 끝까지 다 설파한 대승의 법문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나 법의 근본 이치에서 보면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는데 닦을 것이 있고 증득할 것이 있어, 없는 것을 의지하여 있는 것을 닦는 수행이 된다. 이것이 수증요의이다.

제보살만행(諸菩薩萬行)이란 모든 보살의 온갖 수행법을 지칭하는 말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살만행이다. 육바라밀을 실천 삼현십지(三賢十地)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원만히 이룬다는 뜻이다.

'수능엄(首楞嚴)'이란 범어 수랑가마(suramgama)를 음사한 말로 '수능'이란 모든 것에 구경임을 뜻하는 말이고 '엄'이란 견고하다는 뜻이다. 일체사필경견고(一切事畢竟堅固)라 번역해 왔는데 수능엄정(首楞嚴定)을 두고 한 말이다. 또한 이 수능엄정이 여래장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 곧 불성(佛性) 그 자체를 두고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능엄경〉은 예로부터 많은 주소(註疏)가 나왔다. 당·송·원 청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80여 가지의 주석서(註釋書)가 나왔다. 〈능엄경〉이 대승의 폭넓은 교의를 담고 있는 경전이며, 특히 선수행에 있어서도 매우 중시되었던 경이다. 중국의 선종 종파마다 중요하게 여겼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능엄경〉을 의지한 선학이 연구되었으며, 특히 고려 때 청평(淸平)거사로 알려진 이자현(李資玄, 1061~1125)이 〈능엄경〉을 의지해 선을 닦아 '능엄선(楞嚴禪)'이라는 말이 나왔다.

〈능엄경〉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점이 언제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구산선문(九山禪門)이 생겼던 신라시대에 이미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 1055~1101)이 송나라에 들어가 화엄의 대가였던 정원(淨源) 문하에서 수학하고 돌아올 때 가지고 온 여러 경론 가운데 〈능엄경〉도 함께 전래되었다고 한다.

의천은 선종 6년(1089년)에 건덕전(乾德殿)에서 능엄도량을 개설하여 1주일 동안 법회를 열었다고 한다. 예로부터 〈능엄경〉의 대의를 기탁염 발묘명(棄濁染 發妙明)이라 하여 혼탁한 오염된 마음을 버리고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의 지혜를 계발하는 것이라고 말해 왔다. 10권의 전경에 걸쳐 수행의 근본대의를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설해 놓았다. 〈능엄경〉을 소화엄이라 말해왔듯이 대승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융화·회통하여 여러 가지 수행체계를 폭넓게 설해 놓고 있다. 대·소승과 현교·밀교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경전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묘법연화경' 수지독송, 부처님 친견하는 일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① 묘법연화경의 가치

〈묘법연화경〉의 구성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주제는 묘각을 이루는 방법이다.(본문 化城喩品) 두 번째 주제는 정토불사를 이루는 방법이다.(본문 序品) 세 번째 주제는 정토불사 이후에 일어나는 여래장계의 변화이다.(본문의 提婆達多品과 從地涌出品) 부처님의 말씀 중에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룬 경전은 〈묘법연화경〉이 유일하다. 이것이 〈묘법연화경〉의 가치이다. 이 주제들이 앞으로 다룰 〈묘법연화경〉의 내용이다. 이 주제들을 다루면서 묘각 이전의 수행절차에 대해서도 짬짬이 들여다 볼 예정이다.

묘각을 이루려면 그 이전에 견성오도와 해탈도, 보살도와 등각도를 성취해야 한다. 견성오도와 해탈도는 생멸수행이다. 이는 생멸심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그것을 제도하기 위해서 성취해야 하는 깨달음이다. 생멸심은 의식, 감정, 의지이다. 보살도와 등각도는 진여수행이다. 이는 진여심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존재들이 진여연기를 벗어나기 위해 성취하는 깨달음이다. 진여심은 본성, 각성, 밝은 성품이다. 생멸수행을 통해 본성, 각성, 밝은 성품을 체득하고 진여수행을 통해 본성, 각성, 밝은 성품을 공여래장으로 전환시킨다. 생멸수행의 방법과 진여수행의 방법은 무량의경을 통해 총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묘법연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먼저 〈무량의경〉을 설하시면서 견성오도와 해탈도, 보살도와 등각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런 다음에 〈묘법연화경〉에서 묘각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묘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법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는 과거불로부터 수기를 받아야 한다. 둘째는 등각도를 성취해서 불이문을 이루어야 한다. 셋째는 불세계의 초대를 받아야 한다.(본문 化城喩品) 과거불로부터의 수기는 부처님을 친견해야 이루어진다. 중생이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런 한계성을 극복해 주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묘법연화경〉을 제시해 주셨다. 〈묘법연화경〉을 믿고, 읽고, 쓰고, 외우는 사람들은 이미 수기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본문 授記品)

〈묘법연화경〉을 읽은 공덕으로 우리는 이미 묘각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을 갖춘 것이다. 묘각을 이루는 세 번째 조건인 불세계로의 초대는 두 가지 갖춤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갖춤은 수기불에 대한 그리움을 일으키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수기불의 감응이다. 수기불에 대한 그리움을 일으키는 것을 억불(憶佛)이라 한다. 〈관 무량수경〉에 이르시기를 부처님은 대적정(大寂靜)과 억불심에 머물러 있다고 하셨다. 〈묘법연화경〉으로 수기를 받은 중생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수기불로 삼는다. 때문에 이 중생이 억불을 할 때는 그 대상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묘법연화경〉을 설하시면서 이미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지어 주셨다. 때문에 그 인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일대사인연'이란 부처님이 세간에 출현하시는 이유이며 목적이다. 〈묘법연화경〉에서는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주어 청정함을 얻게 하고, 중생에게 부처님 지견을 나타내 보여주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일대사인연'이라고 하셨다.(본문 方便品) 이런 인연으로, 우리는 이미 묘각을 이룰 수 있는 두 가지 법을 갖추고 있다. 묘각을 이루는 두 번째 법인 등각은 스스로가 닦아서 증득하는 것이다. 등각도를 이루려면 대적정문(大寂靜門)과 대자비문(大慈悲門)을 성취해야 한다. 대적정문으로 공여래장을 이루고 대자비문으로 불공여래장을 이루어서 불이문에 들어가면 등각도를 성취한 것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스님의 능가경 강설

① 달마가 혜가에게, 질문의 어리석음(上)

자신의 질문 속에 모든 답 있어

혜가 스님이 달마대사에게 물었다. "도를 얻고자 하면 어떤 수행을 해야 합니까?",
"마음을 관찰하는 한 가지가 모든 수행을 다 포함한다(觀心一法 總攝諸行)."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치우침 없는 본연의 마음이며, 이 본연의 마음에 개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찰한다면 항상 깨어있음에 전념하게 된다. 본연의 마음에 개입하는 것은 오온의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 치우침 없이 새겨진다면, 달리 마음을 보거나 보지 않거나 하는 것이 없어진다.

화두 공부는 기본 이해도 없이,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좌복에 앉아 무작정 의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앉아서 앵무새가 사람 말을 따라하듯 읊조려도 본래 앵무새인지라 금방 앵무새가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고, 문득 다시 사람 소리를 내어본들 어찌 그것이 사람 소리이겠는가. 소가 뒷걸음치다 쥐를 잡은 것처럼 잠시 편안해져 텅 빈 것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혼자 히죽 웃으며 좋아하겠지만, 바로 경계가 나타나면 소리부터 크게 내지르고 이러쿵저러쿵 핑계를 대면서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회피하려 한다. 아닌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고요함에 빠져들기를 반복하는 것을 화두공부라 하여서는 안 된다. 이 몸도 오랜 시간 동안 화두공부하면서 아주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에 지금 수행자들이 겪는 일이 안타까워 몸이 걸어온 길을 더듬어 가면서 몇 자 적어보려 한다. 하지만 인연 따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만 하기를 당부한다.

화두공부라는 것은 직접 지도해 주는 스승에게 의심되는 것을 물었는데 그 자리에서 계합하지 못하였을 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그 자리에서 바로 알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밀밀하게 점검하는 일이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진전이 있게 된다. 그러나 요즘은 질문은 접어두고 화두를 받아와서 억지로 의심하려고 하니, 더더욱 어려움이 생긴다.

너무 머리를 써서 열을 올려 집중하느라 상기병이 생겨나고, 앉는 것조차 두렵게 되어 고생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의심을 두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생기는 일이니,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진실하게 새겨 보아야 한다. 가르침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퇴전 없이 자연스럽게 화두가 들린다. 세상의 학문도 어려움에 봉착하면 가벼운 마음으로 기본원리를 다시 되짚어 복습해야 자연스럽게 복잡한 원리가 풀리는 것과 같다.

수행이라는 것은 바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화두는 실마리를 놓치지 않고 문답 이전의 일을 마치는 일인데, 대부분 공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며 시체를 안고, 살았나 죽었나 살피면서 지견(知見)만 드높인다. 열심히 한다지만 그 '열심히 한다'는 지견이 생사(生死) 앞에서는 쓸모없는 일이 되어버린다. 자신의 물음과 스승의 즉답에 왜 계합하지 못하였나가 화두공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모든 수행자들이 이 핵심을 놓치고 만다. 심지어 이 핵심이 왜 중요한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그만큼 서두르고 급한 마음만 있는 것이다.

백장 스님은 마조 스님에게 코를 비틀리고, 다른 시자에게 말하기를 "마조 스님께 코를 비틀렸는데 철저하게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운다"고 했다. 임제 스님도 황벽 스님에게 60방을 맞고 계합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다. 입을 열려는 순간 맞은 60방은 대체 무엇에 대한 답이란 말인가! 그런데 많은 수행자들이 자신의 물음은 돌아보지 않고 선사가 왜 그 답을 하였는지를 찾으려고 하니, 세월을 보내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자신의 질문을 회광반조(廻光返照)한다면 그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데 말이다. 〈계속〉

〈(사)여시아문 선원장〉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WWW.JONGJEONG.COM

본회는 불타의 회삼귀일의 가르침과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을 바탕으로하여 한국불교종단 최고 지도자인 각종단 스님들의 모임으로서 불교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며, 광도중생과 안심입명으로 세계인류평화와 국가 사회의 이바지 하고자함을 목적으로 1995년 4월 15일 창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본회는 국가와 겨레를 위한 기원대법회(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위령천도대법회, 일본 관동대지진 한국인희생자 위령대법회(일본관음사),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장병위문 및 보살수계식(논산), 불우이웃돕기 등 수백회의 각종 법회를 국내외에서 봉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교계뿐만 아니라 어둡고 그늘진 사회각층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 할 것입니다.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고문단

대장로 : 정각 대종사 (재)일붕종 종정
삼중 대종사 대한불교자비종 종정
의천 대종사 대한불교선화종 종정
혜우 대종사 일광조계종 종정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법인이사진

대표이사겸회장 : 월인 대종사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수석이사부회장 : 정산 대종사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기획이사부회장 : 월성 대종사 (사)대한불교교종 종정
재무이사부회장 : 도우 대종사 대한반야불교조계종 종정
상임이사부회장 : 정일 대종사 한국근본불교해동종 종정
호법이사부회장 : 지엄 대종사 통불교화엄종 종정
전법이사부회장 : 영월 대종사 대한불교법사조계종 종정
섭외이사부회장 : 법조 대종사 세계불교미륵이안종 종정
행정이사부회장 : 호암 대종사 대한불교총원효종 종정
종규이사부회장 : 동봉 대종사 세계불교육조조계종 종정
유나이사부회장 : 도연 대종사 대한불교성덕종 종정
국외이사부회장 : 월단 명사 용화세계미륵종 종정
차석이사부회장 : 보안 명사 대한불교일붕조계종 종정

법규이사부회장 : 정림 대종사 대한불교수미산문조동정종종정
외호이사부회장 : 법혜 대종사 금강조계종 종정
호계이사부회장 : 법흥 대종사 (재)세계불교미륵대종 종정
이사 : 혜승 대종사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이사 : 청운 대종사 대한불교원각조계종 종정
이사 : 일응 대종사 국제불교조계종 종정
이사 : 무각 대종사 대한불교통일조계종 종정
이사 : 지환 대종사 국제불교금륜종 종정
이사 : 혜원 대종사 한국불교선조계종 종정
이사 : 법휴 대종사 대한불교보리달마종 종정
이사 : 도오 대종사 대한불교묘법연화조계종 종정
이사 : 명암 대종사 대한불교관법조계종 종정

이사 : 옥당 명사 국제상좌부조계종 종정
이사 : 혜능 대종사 대한불교법황종 종정
이사 : 법하 대종사 대한불교신계종 종정
이사 : 도원 대종사 (사)한국불교법사종 종정
회장사서실장 : 삼하무착
사무총장 : 서병열
기획실장 : 전성배
사무국장 : 배영희

※ 입회비 및 년회비 결제한 회원만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전회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748번길 45.16-1호(비래동) 전화 : (042) 285 - 1227
● 사무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81 혜명빌딩 6층 전관 전화 : (02) 756 - 1227 팩스 : (02) 774-1487 ● 부.경사무처 : 불광사. 경남 양산시 주진로 205 전화 : (055) 364-4747